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북서 개최

# “도민 뜻 받들어 행복전북 만들 것”

새만금 개발 ·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 ·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등 지역현안 이행 당정 협력키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7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3면·4면>  
이날 최고위원 회의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송현섭·양향자·김병관·이형석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김현 대변인, 문미옥 당대표 비서실장,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 김춘진 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도지사, 김윤덕 전주갑지역위원장, 이상직 전주를지역위원장, 하정열 정읍고창지역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황현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전북시군의회협의회장, 황숙주 전북기자차단제장협의회장, 유충종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최근 전북에서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가 개최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주 병 지역위원회에서 개최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날 회의는 대선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민심경청 순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전북을 방문, 더욱 의미를 부여했다.

회의는 새만금개발, 군산조선소문제 해결, 전주시특별문화도시, 동학혁명정신 등에 관한 지역현안 등이 논의됐고 건의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쉽지 않군”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치러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동연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생각에 잠겨 있다.



당정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는 훗날로 상징되는 국민의 승리다”면서 “이번 승리는 함께 해주시는 당원 한분 한분이 자신의 선거처럼 열심히 뛰여 주신 결과다. 당원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전북 대선공약 이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최근 AI가 발생해

많은 농가와 해당 지자체가 방역대책 마련에 열심이다”며 “빠른 해결을 위해 당 지도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며 “전북은 동학사상으로 정신적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있지만 인사,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 되는 공약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고위원 회의는 전북도당 대선승리공로자 표창장 수여식과 군산시청 상 황실에 마련된 AI 대책방안 간담회로 마무리 됐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당 사무처장단 회의도 이춘석 사무처장 주재로 이날 전북도당에서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 군산 · 익산 발생 AI, 전국 확산 조짐

군산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군산(1건)과 익산(2건)에서 AI 의심건이 3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익산의 한 농장은 지난 5~6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완주와 익산 농장이 사들인 토종닭을 유통한 중간유통상이 소유한 농장이다.

특히 익산은 전국 최대규모의 육계사육 밀집지중 하나여서 AI사태로 초비상에 걸렸다.

익산은 정읍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61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

육하는 지역이다.

특히 동양 최대규모의 육계가공업체인 하립의 분사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지난 5일 오산면 한 농가주택에서 토종닭 7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이중 2마리에서 AI항원(H5)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이 농가주택은 AI 발원지로 지목되는 군산 오픈계농가와 9.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오산면 농가주택 반경 10km 내에는 40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총 157개 농가가 가금류 610만 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익산시로서는 사태 확산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익산시는 AI의 발원지와 인접한 데다 가금류가 대량 사육돼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하립 공장과 하립으로부터 위탁받아 사육을 하는 대규모 농장들도 바짝 긴장하며 예찰과 소독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망성·용동·남산면 등에는 하립 계열 81개 농가에서 육계 470만 마리를 사육중이다.

익산시도 지역의 근간인 축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함께 대응

에 나섰다.

오산면 AI 농가에 대한 전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이 주택에서 반경 10km에는 방역대를 설정, 예찰을 강화하고 목천동과 용동면에 거점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의 산닭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김진성 기자

### 매일 INDEX

6면 - 고분양가 책정 지역민에게 원성

**社 告**

### 제7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7년 6월 10일 (토)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전주매일신문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7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를 오는 1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 “AI · 가금 계기로 재해 보험 정비해야”

국정기획위, “정부, 쌀값에 대한 방침 천명해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가금 등 농촌 재해를 거론하며 “이를 계기로 재해 관련 보험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인심하고 농사짓고 농촌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AI 문제는 감염 경로와 근본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품도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가마당 12만원대로 떨어진 쌀값과 관련,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며 “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부가 쌀값에 대한 철저한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 제1과제도 쌀값 안정”이라며 “쌀 산업이 농업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 전북대, 국민연금공단과 ICT 공동 연구 추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철로)과 국민연금공단 정보화본부(본부장 최현)은 ICT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7일 오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철로 단장과 최현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

연금공단의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모바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소규모 연구과제 설정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과 공단에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유하고, ICT 신기술 개발 시 공동연구를 통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고창군  
자연의 맛을 담은  
한국인의 문화 **고창**

풍찬잡거와 함께하는  
**2017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2017. 6.16 ~ 6.18 (3일간)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숲 일원